

June  
Polar Policy Net 2015

## Contents

### ◇ 극지정책이슈포커스

### ◇ 남극이슈포커스

### ◇ 북극이슈포커스

### ◇ 환경이슈포커스

## 극지정책이슈포커스

### 정부 R&D, 원천기술 개발·중기 지원에 집중

- 미래부는 6.15(월), 정부 연구개발 혁신방안을 확정하고 38개 과제를 올해 안에 완료하기로 결정
- 주요 내용은 장기적인 기초·원천 연구와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강화, 출연연간 융합연구단 및 융합클러스터 확대, 과학기술전략본부 설치 등임

### 오피니언

- 중장기 R&D 투자전략 수립과 관련, 우주/항공/해양 대분류 하에 극지과학 분야를 새롭게 중분류 분야로 설정하는 작업이 진행 중

### 본문

- **출연연 역할 강화 - 기업이 하기 힘든 원천기술 개발에 집중**
  - PBS(Project Base System) 비중 축소, 민간수탁 활성화 추진
  - 전자통신연구원, 전기연, 화학연 등 6개 기관에 프라운호퍼 지원방식 도입
    - \* 프라운호퍼 지원방식 : 민간수탁 연계자금(출연금 사업비 일부+추가재원)을 마련해 수탁실적과 연계
  - 항우연, 원자력연, 건설연, 핵융합연 등은 정책지정사업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연구 수행 도모
  - 출연연 간 융합클러스터 확대 및 다양한 형태의 융합연구단 운영 활성화
- **정부R&D 기획/관리/평가 혁신으로 연구친화적인 연구환경 조성**
  - 중장기 R&D 투자전략 수립(9대 과학기술분야 및 중분류별 발전전략 도출/15.12월까지 수립)
  - 예타 면제사업 확대, 기초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자 맞춤형 지원, 연구서식 통일 및 보고서 감축 등
- **정부/민간/산학연간 역할 차별화 및 R&D 거버넌스 개편**
  - 정부 R&D 상용화 연구비중 및 대기업에 대한 직접지원 단계적 축소
  - 정부-민간간 중복투자 제거 및 정부R&D 참여 기업의 부담금, 현금부담 비율 상승 추진
  - 과학기술전략본부, 과학기술정책원, 연구관리전문기관 재편 등 거버넌스 개편 추진(향후 구체적인 실행(안) 추가 발표)

June  
Polar News Letter 2015

## Contents

◇ 극지정책이슈포커스

◇ 남극이슈포커스

◇ 북극이슈포커스

◇ 환경이슈포커스

## 남극이슈포커스

### 제38차 남극조약협약당사국회의(ATCM) 결과

- 지난 6월 1일~10일 열흘간, 불가리아에서 개최된 제38차 ATCM에서는 법제도, 운영, 관광, 그리고 권한당국(competent authority) 등 특별주제에 관한 의제 논의

### 오피니언

- ATCM은 남극활동 유형 및 주체의 다변화, 남극활동의 증가 등으로 인해 세분화 되고 전문화 된 의제를 다루기 위하여 회기간 회의(ICG)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 또한 내년에는 '환경보호의정서 25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개최될 예정으로, 이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수행이 필요

### 본문

- 제38차 남극조약협약당사국회의(ATCM) 및 제18차 환경보호위원회(CEP)가 지난 6월 1일부터 열흘간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개최 됨. 불가리아 대통령의 적극적인 후원 아래 신규 가입한 카자흐스탄(151), 몽골('15.3.)을 포함 하여 37개국 400여명의 정부대표단이 참가 함
  - ATCM 법제도작업반에서는 ATCM과 CEP간의 상호작용 강화 및 효율화를 위한 회의 일정 조정, '환경보호의정서 채택 25주년 기념 심포지엄' 일정 및 의제, 다년도 전략업무계획의 업데이트, 회기간 정보교환 확대 등을 논의하였고,
  - ATCM 관광작업반과 특별작업반에서는 관광정책 및 운영 관련 정보공유, 포럼쇼핑\* 예방을 포함한 개인 및 비정부기관의 남극활동 규제, 무허가 제3국 기국선박(요트 포함) 운항에 대한 승선조사 강화, 권한당국 간 정보공유 강화 방안 등이 논의 됨
- \*포럼쇼핑(Forum Shopping)  
: 일반적으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는데 있어 다수의 국가 또는 주(州)의 법원(court)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법원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ATCM에서는 관광 등 남극활동희망자가 다수 국가 중 가장 유리한 또는 편리한 남극활동허가 권한당국을 선택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과거 국가차원의 연구활동이 남극활동의 주류였으나 점차 개인(법인)차원의 관광 활동이 증가됨에 따라 이번 ATCM의 각 분과별 논의가 조약체제의 개정 또는 새로운 규범의 신설에 관한 검토로 귀결되었고, 회기간회의(ICG)의 역할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 아래 대부분 주요의제가 실무적 논의를 위해 ICG에 위임 되었음
  - 이에 우리나라도 문서(WP, IP, BP) 제출 및 ICG 참여를 통해, 남극조약체제의 새로운 의사형성 과정에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며, 2016년 칠레에서 개최될 '환경보호의정서 채택 25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정부 또는 극지연구소의 역할 및 기여방안 마련 필요.



June  
Polar News Letter 2015

## Contents

◇ 북극이슈포커스

◇ 남극이슈포커스

◇ 북극이슈포커스

◇ 환경이슈포커스

## 북극이슈포커스

### 북극이사회(AC) 워킹그룹 공동 제5차 생태계기반(EA) 전문가 워크숍 개최

- 2015년 5월 26~27일 노르웨이 베르겐에서 북극이사회 워킹그룹( PAME, CAFF, AMAP, SDWG) 공동으로 제5차 생태계기반회의(Ecosystem Approach) 회의 개최.

### 오피니언

- 북극이사회는 PAME을 중심으로 북극해양생태계 보호를 통한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EA(Ecosystem Approach to Management)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바, 아라온 북극해 연구/탐사 등을 연계할 수 있는 등 논의의 실질적 검토 필요

### 본문

- EA는 과학/전통 지식에 기반하여 생태계에 부하를 주는 인간활동의 관리로 건강한 생태계로부터 경제 이익을 지속가능하게 실현한다는 개념임.
- 지난 2011년 1차 회의(노르웨이 트롬소)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는 미, 노르웨이, 캐나다, 핀란드, 아이슬란드, 한국 등에서 정부 대표, 전문가, 원주민 대표, 워킹그룹 사무국, NGO 등 20여명이 참가함.
- 동 회의에서는 북극해 해양생태계의 단위인 LME(Large Marine Ecosystem)의 북극해 Boundaries 확정, EA개념 정립, 데이터 이슈, 통합생태계평가(IEA) 역할 등이 논의되었음. 또한 북극해 각 18개 LME 구역에 대한 Ecosystem Objectives 원리 정립을 위한 각국의 유사 사례 소개 및 원주민 입장 등이 논의됨.
- 특히 읍저버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참여하여 아라온의 북극연구활동과 북극이사회 읍저버 활동을 소개하였음
- 미국 NOAA는 지표를 통한 통합생태계평가를 알래스카 해역 등 5곳에 적용하고, 노르웨이는 자국 주변해역에 통합관리계획을 각각 수립하여, EA를 적용하고 있음. 캐나다도 뷰포트해 등에 EA를 적용 중임. 핀란드는 EU의 MSFD (해양전략프레임워크디렉티브), 즉 2020년까지 EU관할 해역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한 관리를 추진하는 등 북극권 국가들이 해양보호를 목적으로 해양생태계 상태를 파악하면서 인간경제활동을 관리 하는 내용을 소개
- 북극 원주민 문제와 관련하여 원주민 전통수호 입장과 북극해 전체관리적 측면과 상충, 지표선정의 어려움, 인간활동 원인이 아닌 자연적 개체 감소 문제, 북극해양생태계 목표 설정 정의수립 등에서 이견이 있어 향후 6차 회의에서 보다 다양한 사례 소개 및 백서 초안 도출 등의 작업이 이어질 예정임.

## Contents

◇ 북극이슈포커스

◇ 국제회의이슈포커스

◇ 북극이슈포커스

◇ 환경이슈포커스

## 환경이슈포커스

### 정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안) 4가지 시나리오 제시

- 관계부처 합동, 기후변화협약 포스트2020 대비 국내 감축목표에 대하여 2030년 BAU 대비 약 15% - 30% 감축 시나리오 마련(환경부 보도자료, 6/10)

### 오피니언

-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 대응차원에서 마련된 감축목표로써, 대외적인 감축의지 표명과 더불어 실질적인 국내규제의 일환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 본문

-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위하여, 지난해 5월부터 15개 전문기관 중심으로 "포스트-2020 공동작업반"을 구성, 분석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무조정실, 기재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개 감축목표 시나리오를 마련하였음
- 경제성장률, 유가, 산업구조 등 주요 경제변수를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전망을 산정한 결과, 2020년엔 7억8,250만톤CO<sub>2</sub>-e, 2030년에는 8억5,060만톤CO<sub>2</sub>-e을 배출할 것으로 분석됨
- 부문별 배출전망은 2030년 기준, 에너지부문이 86.9%로 가장 높으며, 산업공정, 폐기물, 농축산 등이 13.1%를 차지함
- 한편, 지난 2009년 전망치와 비교할 경우, 2020년 배출전망치는 7억8,250만톤 CO<sub>2</sub>-e으로 소폭 상승하였음
- 특히, 3안의 경우 CCS 도입 및 상용화 등 대규모 재정지원 및 비용부담이 요구되는 등 감축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전망으로, 관련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이 시급함

